일제강점기 일본불교 생활상 조명

군산 동국사–한일불교문화학회 공동 학술대회

일제강점기 전북 군산과 익산, 경주의 일본불교와 당시의 생활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군산 동국사(주지 종걸)와 한국일본불교문화학회(회장 원영상)는 10월 27일 동국사 백주년 기념관에서 '일제강점기 군산 · 익산 · 경주의 일본불교'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 첫 발제자로 나선 양은용 원광대 교수는 '모하시 조쿠죠와 익산주재 36년'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교수는 일연종 승려로 한국에 파견돼 영국사를 창건하고 1945년 패전과 함께 일본으로 돌아간 모하시 조쿠죠의 회고록을 통해 일제강점기 일본불교의 역할과 익산의 생활상 등을 조명했다.

양 교수는 "모하시 조쿠죠의 수고본 회고록과 그의 아들이 이 회고록을 바탕으로 저술한 활자본 '주선36개년'의 번역이 마무리되면 일제강점기 익산을 중심으로 한 생활상 등을 밝히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라키 준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는 '경주 법장사의 성립과정에 대한 역사인류학적 고찰'을 주제로 대한제국의 관청건물이던 일승각이 법장사 대웅전으로 남게 된 배경과 당시 대한제국의 목조 문화재 등 문화재 전반의 보전과 파괴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어 일본 조동종 운상사 주지 이치노헤 쇼코 스님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호남의 일본인-인명록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를 주제로 일제강점기 당시 호남에서 활동했던 일본인들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부산 선광사, 개산 맞아 孝나눔

10월 26일, 17주년 경로잔치 및 장학금 전달

선광사가 개산을 기념하며 장학금을 전달하고, 지역 어르신을 위한 효 잔치를 매년 베풀고 있어 지역사회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다.

부산 사상구 선광사(주지 성문)는 개원 17주년을 맞아 지역민을 위한 '효사랑 경로큰잔치 및 장학금 전달식'을 경내 마당 특설무대에서 개최했다.〈사진〉



1부 축하법회에서는 원일 스님의 법문과 주지 성문 스님의 인사말, 내빈 축사 등이 진행됐으며 대덕여고 학생 15명에게 장학금 각 50만원, 총 750만원을 전달했다.

아울러 사찰봉사에 앞장선 모범 신도를 표창하고 격려했으며, 찾아온 지역민을 위한 선물을 전달해 박수를 받았다.

주지 성문 스님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하며 매년 잔치를 열고 있다"며 "지역민의 행복을 위한 나눔을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반륭사, 원효성사 육법공양 다례

원효성사와 요석공주, 설총의 행적지 경산 반륭사(주지 혜해)는 10월 27일 제11회 원효 · 설총 · 요석공주 육법공양 다례재를 봉행했다.〈사진〉



반륭사 주지 혜해 스님은 "원효성사, 설총선생, 요석공주의 얼과 행적이 있는 반륭사는 10여 년간의 불사로 크게 일신해 도지정문화재(제675호) 보유 사찰로 등록됐다"며 "이번 행사는 이 땅의 역사와 문화를 지켜온 성현들의 고귀한 넋을 추앙함은 물론 더불어 고승대덕들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행사로써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왕재산행, 어르신잔치, 육법공양 다례재가 진행됐으며 사부대중 300여 명이 동참해 성황리에 봉행됐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역대 조사에 禪茶 향 올려"

해운정사, 제4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 성료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심인법의 법맥을 잇고 있는 제79대 적손 진제 스님이 조사전 앞에서 헌화하고 합장했다. 이내 조사스님들의 명호가 차례로 불렸고 해운정사 다도팀이 나와 헌다했다. 차 향은 불조(佛祖)의 심인법을 계승한 108명의 조사스님들에게 널리 퍼져갔으며 모든 대중들은 일제히 손을 모으며 감사의 대재를 올렸다.

선종본산 해운정사(조실 진제)는 11월 1일 해운정사 불심인조사전 앞에서 '제4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佛祖心印傳燈茶禮大齋)'를 봉행했다. 행사는 명종과 개회사로 시작해 헌화 및 헌다가 진행됐다. 이어 발원문 및 헌사, 내빈 축사가 이어졌으며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문으로 마무리됐다.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는 2,600년 전 깨달음을 얻은 석가모니의 심인법을 적통 계승한 108명의 역대 조사스님에게 헌다 공양하고 중생의 깨달음과 교단청정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다. 아울러 세계에 선법이 선양되길 발원하는 자리로 매년 음력 9월 24일에 맞춰 진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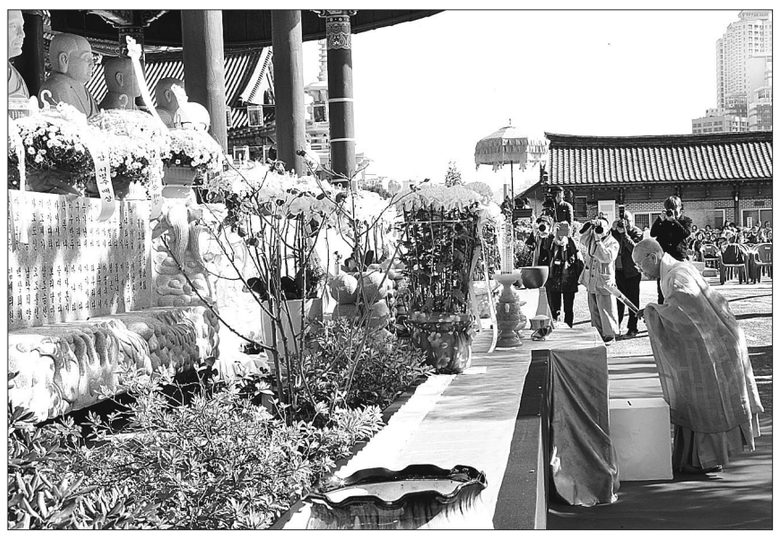
특히 이번 다례재에 맞춰 대중이 해운정사를 찾아 10월 30일부터 철야용맹정진을 진행했으며 다례재에서 정진 회향해 더욱 뜻 깊다는 평가가 나온다.

행사에는 처음으로 지역민을 위한 특별 잔치 한마당이 개최돼 볼거리도 제공했다. 해운정사 다도원을 필두로 다례재를 진행한 후 수도암 향적 다례원, 정빈다도원, 정경 다례원, 부경대 중국차 평생교육원 등 전문 차인들이 펼치는 화려한 찻자리가 지역민을 반겼다.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양을 대표하는 차 문화와

심인법 적통 계승한 108조사
그윽한 차향으로 공양 올려
철야용맹정진으로 의미 더해
"한국 선법이 만방에 꽃피길"

서양의 홍차 생활을 보여주는 특별 찻자리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으며 김성녀 국악인의 전통 무대가 열렸다. 아울러 점심공양 및 푸짐한 선물도 지역민에게 제공돼 베푸는 잔치 한마당으로 회향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태고 선사의 가풍이 면면히 내려와, 경허 성우 선사에 이르러 아손이 번성하니, 오늘날 세계 방방곡곡에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선풍을 널리 선양하여, 한국의 선법이 만방에 꽃을 피우고 있다"고 법문했다.



해운정사는 11월 1일 해운정사 불심인조사전 앞에서 '제4회 불조심인전등다례대재를 봉행했다. 사진은 종정 진제 스님이 조사전에 헌화하는 모습.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은 "존재만으로 사무치게 고맙고 감사한 저희들의 스승님! 바른 법을 만나 귀의하오니, 그 공덕으로 업보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조사관의 밝은 빛으로 반야의 품에 들게 하소서"라고 헌사했다.

의현 스님, 서병수 부산시장, 하태경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홍순현 해운대구청장 등 내빈들의 축사도 이어졌다.

참석한 불자들은 무엇보다 "심인법의 법맥이 지금까지 내려왔고 적손이 진제 스님이셔서 복되다"고 기뻐했다.

오영희(55) 씨는 "부처님의 법맥이 이어져 면면히 내려오고 있음을 다시 한번 더 새길 수 있는 시간이었다"며 "적손이신 진제 스님께서 차를 올리시는 모습은 그 자체로 환희로웠다"고 말했다.

김지영(45) 씨는 "화려한 다례재를 보는 것도 행복했고 조사스님들께 헌다하는 뜻 깊은 다례재를 보니 마음을 다해 정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소감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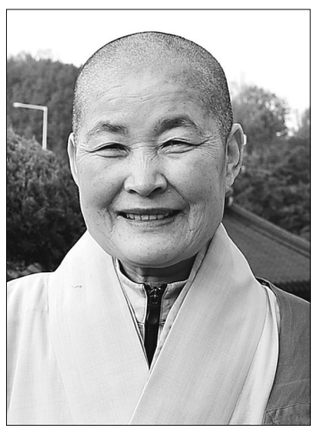
한편 다례재에는 종정 진제 스님, 前통도사 방장 원명 스님, 동국대 명예교수 법산 스님, 동화사 주지 효광 스님, 서병수 前부산시장, 박대성 해운정사 신도회장 등 사부대중 1500여 명이 참여했다.

"화합으로 광주불교 혁신을"

제4대 광주불교연합회장 신광사 동현 스님 선출
부회장 명신 · 보응 · 도계 스님

"승가의 화합을 통해 광주불교의 혁신을 만들어 나아가겠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0월 26일 광주불교회관 법당에서 제6차 정기총회를 열고, 제4대 광주불교연합회장에 신광사 주지 동현 스님〈사진〉을 선출했다. 동현 스님은 회장 선출 직후 이 같이 포부를 밝혔다.



광주지역 회원 스님들이 참여한 이날 총회에서 단독 출마해 당선된 동현 스님은 "승가의 이해와 화합을 바탕으로 광주지역 불교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진 다양한 사업들을 더욱 발전시켜 대외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연합회를 만들겠다"고 당선 소감을 말했다.

특히 광역시 최초 비구니의 연합회장 당선에 대해 "광주불교가 종단과 비구, 비구니를 포함해 사부대중이 새롭게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어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회장에 이어 수석부회장은 명신 스님(연화사), 보응 스님(세심정사), 도계 스님(소원정사)이, 행정감사는 인성 스님, 재정감사 혜법 스님(미륵사)이 선출됐다. 선출된 임원임기는 2년이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정기총회에는 증심사 합창단의 축하공연에 이어 불교의례, 시상식, 안건심의, 임원선거가 진행됐다.

시상식에서는 광주불교연합회와 빛고을나눔나무에 큰 공헌을 한 명신 스님, 혜월 스님(한마음선원광주지원), 혜법 스님에게 감사패가 전달됐다. 또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에 역할을 한 이동배 교법사(정광고교), 홍신도 회장(광주운전불자회), 부설단체인 사진문화반 김광수 · 광주불교산우회 류윤숙 등에게도 감사패가 수여됐다. 시상식 이후에는 2018년도 결산과 2019년 예산안 인준도 진행됐다.

한편 제4대 회장에 선출된 동현 스님은 1973년 신광사 석호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사미니계를, 1980년 범어사 지관 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했다. 동학승가대학, 중앙승가대학교를 졸업하고 대성암, 삼선암 등에서 안거 수행했다. 광주 금선사 주지, 광주조계종승보회장, 광주불교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신광사 주지, 조계종 광주비구니 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동현 스님은 광주전남어린이청소년연합회 이사, 광주불교연합회 연희기획단장,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본부의 이사, 광주지방경찰청 경승위원 활동을 통해 어린이, 청소년, 불교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지역 불교발전에 헌신하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혼의 세계 (빙의)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 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

천 광 수 련 원 ☎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하기책자 5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 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명) 글쓴이 : 혜천법사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0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전생의 빚을 소멸시켜 자신의 운명을 바뀌게 하는"

생전예수재기도의 중요성과 그 성취효과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생전예수재는 "왜" 필히 지내야만 하는가?
② 생전예수재 신청 및 집에서 기도하는 방법
③ 생전예수재 기도후 일어난 영험사례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오포로 345-4 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768-8413